

“수어, 당당하게 쓰는 언어 자리매김에 눈물났다”

22년차 수어통역사 고은미씨

“농인 위한 전문 수어방송 신설 고민 계기 되길”

문체부, 공공 수어통역진흥원 설립 연내 추진



수어통역사 고은미씨가 13일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기자실에서 브리핑 내용을 수어로 통역하고 있다.

“공공 수어통역사의 활동으로 수어가 당당하게 쓸 수 있는 언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앞으로도 농인들이 코로나19 등의 최신 정보에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전문 수어방송의 신설을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2년차 수어통역사인 고은미씨는 13일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기자실에서 “공공 수어통역사들이 코로나19 등 최신 정보에서 농인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역할을 해 기쁘다”라고 말했다.

고은미씨는 지난해부터 정부 부처의 브리핑 등에서 공공 수어통역을 맡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정부 브리핑에 수어통역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수어 통역은 올해 6월 말까지 총 435건을 지원했으며 이 중에는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371건 (85%)에 이르렀다. 고은미씨는 “코로나 관련해 새로

운 말이 많이 나온다”며 “공공 수어통역사들이 단체채팅방을 만들어 관련 기사들을 미리 살펴보고 공유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어는 음성언어와 표현의 체계와 길이가 다르다. 고은미씨는 “음성언어의 길이에 맞춰 수어를 표현해야 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말했다.

고은미씨는 “수어는 동작으로 뜻을 표현하기 때문에 짧은 단어의 음성언어를 여러 동작으로 표현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맥락이나 어감의 차이 등을 말하는 길이에 맞추다보면 정확한 표현이 아쉬울 때가 많다”고도 말했다.

한편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3일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고은미씨를 비롯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공공 수어통역사 10여 명을 초청해 감사패를 증정하며 올해 연말까지 공공수어통역과 관련해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채용하는 민간기구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어통역사는 현재 한국농아인협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 세종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공공 수어통역사에게 감사패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회가 주관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할 수 있으며 2020년 6월 현재 약 18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 수어통역사는 1800여 명의 수어통역사 가운데 10명에 불과하다. 공공 수어통역사들이 특정 기관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공공 수어통역을 위해 연차를 내는 등의 개인적 희생이 감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박양우 장관은 “외국의 농인들이 우리나라 브리핑의 수어통역을 부러워한다고 들었다”며 “전문적인 공공 수어통역사를 양성하고, 공공 영역의 각종 안내문 등에 대한 수어 영상 제공 확대 등을 통해 공공 영역에서의 수어 사용을 더욱 확대하

고 전문성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고은미씨는 “공공 수어통역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며 “기존의 수어통역사나 새롭게 지망하는 사람들에게 통일된 수어를 가르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소외된 수어가 당당하게 쓸 수 있는 언어로 자리를 잡고 발전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기쁘다”며 “나아가 수어로만 방송하는 수어 전문 방송 채널이 신설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구례군, 치매안심마을 치매파트너 교육



구례군은 지난 9일 간전면사무소에서 치매안심마을 지역서비스 공급자를 대상으로 치매파트너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치매안심마을로 지정

된 간전면의 지역 주민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면사무소, 보건지소·진료소, 파출소, 우체국, 농협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치매 바로 이해하기, 치매파트너의 역할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본 교육은 치매 어르신의 행동 특성을 알고, 어르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먼저 다가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매파트너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전달하였다.

치매파트너 홍보 영상을 시청하며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누구나 치매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알렸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한 직원은 “치매에 대해 잘못 알았던 부분이 많았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치매안심마을 내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치매파트너가 양성되어 간전면이 치매 친화적인 마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치매에 대한 상담은 구례군 치매안심센터 (780-2558) 또는 치매상담콜 (1899-9988)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구례=박진호 기자

강진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따뜻한 복지동네 프로젝트

2차 정기회의 개최

지난 8일 강진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강진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2차 정기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그동안 추진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1차 정기회의에서 다뤘던 내용을 토대로 5건의 특화사업과 2건의 신규 특화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협의체는 코로나19로 ‘지역복지 문화탐방’은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역복지 문화탐방’은

협의체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타 지자체에 방문해 선진 우수사례를 견학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문화탐방 프로그램 대신 코로나19 예방 물품 및 여름나기 물품 지원으로 사업을 변경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신규사업인 저소득층 및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례관리자와 함께하는 찬찬찬(饑)행복밥상 만들기’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 횟수와 참여 인원을 줄여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